

The Effect of Mothers' Play Participation with Young Children on Play Beliefs¹⁾

Hong, Hyun-Myung (KNPU Childcare, Teacher)

Kwon, Hye-Jin²⁾ (Soonchunhyang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mothers' play participation with young children on their play beliefs. For this, 260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mothers with young children in C city, and 191 questionnaires were finally analyze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 product-moment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and the following findings could be obtain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mother's play participation level and holiday playtime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mother's play support belief. On the other hand, there was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the level of play participation and learning-centered beliefs. Second, the level of play participation and holiday playtime of mothers with early childhood children were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mothers' play support beliefs, and weekday playtime was found to have a negative effect. Mother's weekday playtime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learning-centered beliefs, but the mother's play participation level and holiday playtime had a negative effect.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factors affecting the play participation and play beliefs of mothers of early childhood children and the direction of parental education were discussed.

Key Words : Young children, play participation, play beliefs, mother

1) This work was supported by Soonchunhyang University in 2021.

2) Corresponding Author: Kwon, Hye-Jin, Professor, Soonchunhyang University, 22 Soonchunhyang-Ro, Sinchang-Myeon, Asan-Si, Chungcheongnam-Do, Korea, 31538 / E-mail: hjkwon4875@sch.ac.kr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놀이참여가 놀이신념에 미치는 영향¹⁾

홍현명 (경찰대학교 어린이집, 교사)

권혜진²⁾ (순천향대학교, 부교수)

< 요약 >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놀이참여가 놀이신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C지역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26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191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기술통계, Pearson 적률상관관계분석,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놀이참여수준, 휴일놀이시간이 어머니의 놀이지지신념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반면, 놀이참여수준과 학습중심신념과는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둘째,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놀이참여 수준과 휴일놀이시간은 어머니의 놀이지지 신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평일놀이시간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평일놀이시간은 학습중심 신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어머니의 놀이참여수준과 휴일놀이시간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놀이참여와 놀이신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부모교육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 유아기, 놀이신념, 놀이참여, 어머니

1) 이 논문은 2021년 순천향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2) 교신저자: 권혜진, 부교수, (31538)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순천향로 22, 순천향대학교 / E-mail: hjkwon4875@sch.ac.kr

논문투고일자: 2021. 8. 14 / 심사일자: 2021. 8. 18 / 게재확정일자: 2021. 9. 8

I. 서론

유아에게 놀이는 삶의 본질이자 생활이다. 놀이는 유아의 전인적인 성장을 돕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유아는 놀이를 통해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관계를 형성하고 상호작용하며 세계를 이해해 간다. 유아들은 놀이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발적으로 시도하며 조절하고 구조화하면서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며 자기를 표현한다(Lim et al., 2019; O'Connor, 2001; Rogers & Sawyers, 1995).

유아의 놀이는 부모와 함께 시작되고 부모는 유아가 맺는 최초의 놀이 친구이며 놀이 환경이다. 부모는 자녀와 놀이하는 동안 자녀의 놀이를 계획해 주기도 하고 촉진시키기도 하며 놀이의 수준을 더 높여준다. 놀이에서 부모의 참여와 안내는 유아의 인지 및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Fein & Stork, 1981; Russell & Saebel, 1997). 그뿐만 아니라 유아는 부모와의 놀이를 통해 부모 자녀 간의 유대관계를 형성한다(Ginsburg, 2007). 부모가 자녀의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많은 시간 함께 놀이할 때 유아의 놀이는 확장되며 사회, 정서, 인지 등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부모의 놀이참여는 유아의 흥미를 위한 적한 놀이 환경 및 놀잇감 제공(Sim, 2018), 적절한 시간의 개입과 상호작용을 포함한다.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놀이를 통해 유아는 놀이에 필요한 도움을 적절히 받으며 놀이에 더 몰입할 수 있게 되고 놀이를 확장하며 흥미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을 키우게 된다(Lee, 2015). 부모와 함께 놀이하면서 창의성, 언어능력, 조망 수용, 협동, 자기 신뢰감 등의 사회적 기술 발달(Smilansky & Shefataya, 1990; Smith & Syddall, 1978) 등 유아의 다양한 발달과 긍정적 지원을 이끌 수 있다. 특히 어머니는 유아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며 어머니가 유아의 놀이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어머니는 자녀와의 놀이에 직접 참여하고 놀이 재료와 환경을 제공하여 놀이를 더 활발히 촉진해 주며 유아의 놀이에 긍정적인 기회를 제공하여 자녀를 이해하는 기회가 되므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Benson, 1994, April 11-16). 어머니의 놀이참여수준과 놀이 수준은 유아의 학습관련기술, 사회적 행동, 소근육 운동능력에 영향을 미치며 어머니의 놀이참여수준이 높을수록 유아가 또래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갈등이 발생했을 때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한다(Lim et al., 2012).

어머니의 놀이참여에서 어머니가 형성하고 있는 놀이신념은 중요하다. 어머니의 놀이신념은 놀이가 유아의 전인적 발달에 가치가 두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 굳게 믿고 있는 마음을 뜻한다(Harver & Howes, 1993; Fogle, 2003; McGilicuddy-Dalisi & Sigel, 1995; Sim & Lee, 2018; You, 2008). 유아의 놀이에 대해 가지는 어머니의 놀이신념과 태도에 따라 유아의 놀

이 양상과 질이 달라질 수 있다. 즉, 어머니가 어떻게 유아의 놀이를 바라보고 놀이의 가치와 목적을 인식하는가는 유아가 경험하는 놀이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Kim et al., 2019). 현대의 저출산, 소자녀, 조기교육 등의 사회적 현상과 분위기는 놀이에 대한 어머니들의 인식과 신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Ahn, 2007; Kim & Ohm, 2007). 다수의 어머니들은 자녀의 놀이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주요 놀이대상자로 적극적으로 놀이를 지원하며 유아의 놀이를 정교화한다(Ginsburg, 2007; Kim et al., 2013; Lee et al., 2004; You & Yoo, 2008). Fogle(2003)은 어머니가 자녀의 놀이에 대해 유아의 발달에 도움을 주는 즐거운 것으로 믿고 가치를 인정하면서 놀이를 지지하는 신념체계를 가지고 있으면 유아는 자발적인 놀이를 통하여 자신의 잠재력을 이끌어 내는 힘을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 이는 놀이가 유아의 발달에 중요한 경험이라고 믿는 어머니의 자녀가 놀이참여도와 만족도, 놀이성이 높은 특성(Chae et al., 2004; Kim & Choi, 2012)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놀이신념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어머니의 긍정적 놀이신념은 유아의 놀이성에 영향을 미치고(Kim, 2012; You, 2008), 유아의 놀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놀잇감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Han, 2017)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어머니의 놀이 참여와 놀이 조성 환경에서 유아는 놀이성, 정서·사회성 발달 수준 및 놀이상호작용이 증진(Kang & Moon, 2012; Lee 2009; Lee, 2011; Shin, 2009)된다. 또한, 어머니의 개입유형이 유아의 놀이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Fein & Fryer, 1995)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놀이지지 신념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의 자녀는 또래와 상호작용에서 놀이에 문제되는 행동을 적게 하고 학습중심 신념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의 또래와 상호작용에서 놀이에 문제가 생기거나 놀이에 단절되는 경향(Fogle, 2003)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어머니의 놀이신념은 놀이의 방향을 제시하고 어머니 자신의 놀이행동을 이끌며 이를 통해 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근원(Sim & Lee, 2018)이 된다.

그럼에도 어머니들은 자녀와의 놀이신념과 놀이참여에서 이중성을 나타낸다. 어머니들이 놀이가 자녀의 전인적 발달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자녀가 많은 시간, 다양하게 놀이하기를 원하지만 실제 자녀와의 놀이참여에서 어머니들은 놀이를 포함한 자녀 양육의 모든 영역에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자녀에게 최상의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혼란, 어려움을 겪고 있다(Babuc, 2015; Fogle & Mendez, 2006; Lee & Bae, 2013; Roopnarine & Davidson, 2015). 어머니의 놀이신념과 놀이참여에 대한 질적연구를 수행한 Kang & Han. (2017)은 놀이에 대한 어머니의 신념이 이중적으로 작용하며 이는 어머니들이 자녀 놀이에 참여하면서 ‘어머니’의 역할과 ‘개인’이라는 존재가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즉, 어머니들은 자녀의 발달과 미래에 더 도움이 되는 놀이를 지원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실제 놀이참여에서 어머니들은 어머니가 만족스러운 놀이시간과 공간을 소

유하고 자신이 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를 희망하였다. 또한, 놀이참여에서 자녀들이 원하는 역할을 요구받을 때 신체적 소진과 더불어 어머니가 좋아하는 놀이가 아닌 자녀가 즐거워하는 놀이에 참여하는 것에 힘들어하는 모습도 보였다. 유사한 맥락에서 Park & Kim (2011)의 연구에서 어머니들은 놀이에 관심이 있지만, 놀이시간, 놀이 공간, 방법, 기술 등이 부족하여 실제 자녀와의 놀이시간이 적고 소극적인 놀이가 이루어지고 있음이 나타났다. 또한, Hong(2010)의 연구에서 어머니들은 유아의 놀이가 상대와 주고받는 상호작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자녀와의 놀이에서 어머니는 놀이에 존재하는 대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더욱이, 어머니들이 놀이를 중요시하면서도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에 양육활동, 학습활동을 포함하는 다른 활동(Hong, 2010; Lee, 2015)을 제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어머니들이 놀이를 중요시하면서도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에 양육활동, 학습활동을 포함하는 다른 활동(Hong, 2010; Lee, 2015)을 제공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이들 연구를 종합해 볼 때, 어머니가 자녀의 놀이에 대한 발달적 관점, 놀이성 중시, 놀이몰입을 위한 환경을 중요시하는 신념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실제 자녀와의 놀이참여에서 어머니는 자녀와의 놀이에 어려움을 느끼고 소극적 역할, 어머니 자신의 원하는 놀이로 이끌고 환경 마련, 놀이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신념을 연구한 연구자들(Chung, 2008; Feiman-Nemser et al., 1989; Oh, 2003)은 교육실습경험을 통해 예비교사의 교육신념이 변화된 결과를 제시하였다. 어머니들은 교사와 달리 전문적인 교육훈련 경험을 지니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어머니와 자녀 간 놀이 경험의 형태는 매우 다양할 수 있고 어머니의 놀이에 대한 신념과 태도는 상호작용한다. 따라서 어머니가 지니고 있는 자녀발달과 놀이에 대한 지식과 정보들은 자녀와 직접적인 경험을 하는 동안 수정되고 변화되거나 확신하게 됨으로써(Jeun, 1995), 일련의 구조화된 신념체계가 강화되고 재구조화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어머니의 놀이참여와 어머니의 놀이신념의 관련성과 영향력을 살펴보는 일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수행된 선행연구는 부모의 신념이 유아의 발달과 관련된 주요한 변인으로 보고 부모 놀이신념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부모의 놀이신념이 놀이참여와 어떤 관련성을 지니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초점을 두어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놀이신념이 놀이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Haight et al., 1997; Hong, 2007; J. E. Kim, 2014; Kim et al., 2013; Park, 2014; Yoon, 2011)임을 밝혔다. 부모의 놀이신념과 유아의 발달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Fogle, 2003; Nam & Kim, 2013; Park, 2014; Park & Kim, 2011; Lee, 2008; You, 2008)은 어머니가 긍정적인 놀이신념을 가질수록 자녀의 발달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최근 수행된 연구에서 어머니의 놀이신념 및 놀이참여 변인은 유아의 자아탄력성(Han, 2019)과 행복감(Kim, 2020)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놀이참여는 부모의 놀이신념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유아의 발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Jang, 2014; Kim, 2012; J. E. Kim, 2014; Kim et al., 2013; Park, 2014; Yoon, 2011)이 될 수 있음에도 이와 관련하여 수행된 연구가 미흡하다. 또한, 어머니는 놀이 참여와 신념은 유아의 놀이방향에 영향력(Sim & Lee, 2018)을 미치는 주요 대상임에도 주로 부모를 대상으로 놀이참여와 놀이신념 관련 연구가 수행되어 어머니의 놀이참여와 신념에 대해 의미 있게 탐색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놀이참여가 놀이신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로써, 어머니와 유아의 즐거운 놀이를 지원하고 유아의 발달을 돕기 위한 부모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놀이참여와 놀이신념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놀이참여가 놀이신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놀이참여가 놀이신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3-5세 자녀를 둔 어머니를 연구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C지역에 위치한 유치원, 어린이집을 임의 표집하여 연구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기관에 연구 협조를 구하였다. 연구 협조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 절차, 설문 내용을 다시 설명하고 기관에서 연구대상 어머니에게 연구 동의 과정을 거쳤다. 최종적으로 연구 동의한 어머니를 대상으로 2020년 7월 4주부터 8월 2주에 걸쳐 설문지를 기관에 배포하고 직접 회수하였다. 배부한 260부의 설문지는 210부가 회수되어 81%의 회수율을 보였다. 응답이 누락 되거나 불성실한 응답이 있는 설문지 19부를 제외한 191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최종 분석에 사용된 연구대상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특성

배경 변인	구 분	n(%)
자녀성별	남자	90(47.1)
	여자	101(52.9)

자녀연령	만 3세	65(34)
	만 4세	63(33)
	만 5세	63(33)
자녀수	한 명	71(37.2)
	두 명	95(49.7)
	세 명	25(13.1)
출생순서	첫째	52(27.2)
	막내	62(32.5)
	중간	10(5.2)
	외동	67(35.1)
연령	30세 미만	16(8.4)
	31세 이상 35세 미만	55(28.8)
	36세 이상 40세 미만	79(41.4)
	41세 이상	41(21.4)
학력	고등학교 졸업	27(14.1)
	전문대 졸업	77(40.3)
	4년제 대학 졸업	79(41.4)
	대학원 졸업 이상	8(4.2)
취업형태	전업주부	77(40.3)
	전일제	75(39.3)
	시간제	39(20.4)

2. 연구도구

가. 어머니의 놀이참여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놀이참여를 조사하기 위하여 Won(1998), Yoon(2011)의 연구를 토대로 구성된 Jung(2018)의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어머니 놀이참여 측정문항은 <표 2>와 같이 자녀와의 놀이시간 2문항, 놀이참여수준(놀이유형, 놀이참여단계) 22문항으로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어머니 놀이참여수준 중 놀이유형은 <표 3>과 같이 구성놀이, 신체체놀이, 교수놀이, 게임놀이, 역할놀이, 기능놀이의 6개 하위 영역으로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어머니 놀이참여수준 중 놀이참여단계는 <표 4>와 같이 놀이유형별로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놀이에 참여하는지 측정하기 위한 것이며 비참여(1점), 바라보기(2점), 소극적 참여(3점), 적극적 참여(4점)의 Likert 4점 평정척도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놀이참여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 어머니 놀이참여 측정 문항 구성 및 내용

하위요인	내용	문항 수
자녀와의 놀이시간	· 평일 자녀와의 놀이시간 · 주말 및 공휴일 자녀와의 놀이시간	2
놀이참여수준	· 놀이유형과 놀이참여단계	22
전체		24

<표 3> 어머니 놀이참여 유형

놀이유형	활동 예	문항수	Cronbach α
구성놀이	종이접기, 블록 쌓기, 퍼즐 맞추기, 목공놀이 등	3	.78
신체놀이	껴안기, 씨름하기, 달리기, 팔씨름, 간질이기, 잡기 등	4	.67
교수놀이	글자 쓰기, 그림 그리기, 색칠하기, 동화책 읽기 등	4	.72
게임놀이	바둑, 체스, 카드, 윷놀이, 가위바위보 게임 등	3	.59
역할놀이	소꿉놀이, 선생님 놀이, 병원 놀이, 가게 놀이 등	4	.88
기능놀이	비눗방울 불기, 공굴리기, 볼링, 비행기 날리기 등	4	.80
전체		22	.88

<표 4> 어머니 놀이참여 단계

수준	내용
1단계: 비참여	자녀를 혼자 놀게 두거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와 놀게 하고 본인은 놀이에 참여하지 않으며 자녀의 놀이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2단계: 바라보기	자녀의 곁에 있으면서 놀이 행동을 바라보고 관심을 보이지만 자녀의 놀이에 참여하지는 않는다.
3단계: 소극적 참여	놀이상황에서 자녀에게 도움을 주거나 함께 놀잇감을 가지고 놀이에 참여하지만 자녀의 도움요청이 있을 때만 반응하는 정도로 소극적인 참여를 한다.
4단계: 적극적 참여	부모가 유아의 놀이 상대자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놀이를 보다 더 활성화시킨다.

나. 어머니의 놀이신념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놀이신념을 측정하기 위해 Fogle(2003)이 개발한 부모 놀이신념 척도(Parent Play Beliefs Scale: PPBS)를 Lee(2008)가 번안하여 사용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어머니 놀이신념 측정 문항은 놀이지지(17문항)와 학습중심(8문항)으로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놀이지지’는 놀이가 유아의 발달에 도움이 되는 즐거운 활동이라고 믿는 신념이며 ‘학습중심’은 놀이가 유아의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믿으면서 학습적 활동을 중요시하는 신념을 의미한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5점)로 각 문항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신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어머니 놀이신념 측정 도구 구성 및 신뢰도는 <표 5>와 같다.

<표 5> 어머니 놀이신념 측정도구의 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 수	Cronbach α
놀이지지	1, 3, 4, 5, 7, 9, 10, 11, 12, 15, 16, 19, 20, 21, 23, 24, 25	17	.92
학습중심	2, 6, 8, 13, 14, 17, 18, 22	8	.73
전체		25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들은 SPSS WIN 24.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연구도구인 설문지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 α 를 구하였다. 셋째, 어머니의 놀이참여수준과 놀이신념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관계분석을 실행하고 어머니의 놀이참여수준이 어머니의 놀이신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자녀와 놀이하는 시간이 어머니의 놀이참여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어머니의 놀이참여와 놀이신념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놀이참여 변인과 놀이신념 변인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6>과 같이 어머니의 놀이참여의 하위요인인 놀이참여수준과 어머니의 놀이신념 하위요인인 어머니의 놀이지지 신념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r=.463, p<.001$). 또한 놀이참여 하위요인인 휴일놀이시간과 놀이지지 신념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r=.298, p<.001$). 어머니의 놀이참여의 하위요인인 놀이참여수준과 어머니 놀이신념의 하위요인인 학습중심신념과는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r=-.297, p<.001$). 평일놀이시간은 어머니의 놀이신념과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6> 어머니의 놀이참여 수준 및 시간과 놀이신념 간의 상관관계 분석

	놀이지지 신념	학습중심 신념	놀이참여 수준	평일놀이시간	휴일놀이시간
놀이지지 신념	1				
학습중심 신념	-.561***	1			
놀이참여 수준	.463***	-.297***	1		
평일놀이시간	.069	.061	.193**	1	
휴일놀이시간	.298***	-.233***	.332***	.614***	1

** $p<.01$, *** $p<.001$

2. 어머니의 놀이참여가 어머니의 놀이신념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놀이참여가 놀이지지 신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F=21.538, p<.001$), 설명력은 24.5%로 나타났다. 또한, Durbin-Watson 값은 1.827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분산팽창지수(VIF)는 1.124~1.738로 모두 10 이하로 나타났다. 공차한계는 .575~.889로 모두 0.1 이상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귀분석결과 <표 7>과 같이, 어머니의 놀이참여 수준($\beta=.502, p<.001$)과 휴일놀이시간($\beta=.097, p<.001$)은 어머니의 놀이신념 하위요인인 놀이지지 신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평일놀이시간($\beta=-.069, p<.05$)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놀이참여 수준과 놀이시간 중 놀이신념 하위요인인 놀이지지 신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해보면 놀이참여 수준($\beta=.406$)이 평일놀이시간($\beta=-.176$), 휴일놀이시간($\beta=.271$)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력으로 놀이지지 신념에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표 7> 어머니 놀이참여 수준 및 시간이 놀이지지 신념에 미치는 영향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TOL	VIF
	B	SE	β			
(상수)	2.319	.263		8.822***		
놀이참여 수준	.502	.083	.406	6.080***	.889	1.124
평일놀이시간	-.069	.032	-.176	-2.197*	.623	1.606
휴일놀이시간	.097	.030	.271	3.263***	.575	1.738
F				21.538***		
adj R ²				.245		
Durbin-Watson				1.827		

* $p < .05$, *** $p < .001$.

이어, 어머니의 놀이참여 수준 및 놀이시간이 놀이신념 하위요인인 학습중심 신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F=13.118$, $p < .001$), adj $R^2=0.161$ 로 설명력은 16.1%로 나타났다. 또한, Durbin-Watson 값은 1.651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산팽창지수(VIF)는 1.124~1.738로 모두 10 이하로 나타났고 공차한계는 .575~.889로 모두 0.1 이상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귀분석결과 <표 8>과 같이 어머니의 평일놀이시간($\beta=.148$, $p < .001$)은 놀이신념 하위요인인 학습중심 신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놀이참여수준($\beta=-.347$, $p < .001$)과 휴일놀이시간($\beta=-.145$, $p < .001$)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놀이참여 수준과 놀이시간 중 놀이신념 하위요인인 학습중심 신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해보면 평일놀이시간($\beta=.148$)이 놀이참여 수준($\beta=-.347$), 휴일놀이시간($\beta=-.145$)보다 학습신념에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표 8> 어머니의 놀이참여 수준 및 시간이 학습중심 신념에 미치는 영향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TOL	VIF
	B	SE	β			
(상수)	3.538	.321		11.008***		
놀이참여 수준	-.347	.101	-.242	-3.440***	.889	1.124
평일놀이시간	.148	.039	.324	3.847***	.623	1.606
휴일놀이시간	-.145	.036	-.352	-4.014***	.575	1.738

F	13.118***
$_{adj}R^2$.161
Durbin-Watson	1.651

*** $p < .0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놀이참여와 놀이신념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어머니의 놀이참여가 놀이신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논의 및 결론을 맺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놀이참여 변인과 어머니 놀이신념 변인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놀이참여의 하위요인인 놀이참여수준과 어머니의 놀이신념 하위요인인 어머니의 놀이지지 신념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놀이참여 하위요인인 휴일놀이시간과 놀이지지 신념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반면, 어머니의 놀이참여의 하위요인인 놀이참여수준과 어머니 놀이신념의 하위요인인 학습중심신념과는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하여 Lee & Chung(2016)의 연구에서 부모의 놀이지지 신념이 주말이나 휴일을 제외하고 평일 놀이참여 시간, 참여 빈도, 참여 수준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어머니를 포함하는 부모들이 자녀 놀이참여와 더불어 놀이가 발달적인 가치가 있고 부모의 놀이참여가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놀이지지 신념이 평일과 휴일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어머니들의 주말, 휴일 놀이참여시간과 양상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참여 양상에 따른 어머니들의 놀이신념을 함께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더불어, 취업모의 경우 놀이참여와 놀이신념, 놀이참여 양상을 세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한편, Lee & Shin(2020)은 어머니가 놀이에 대해 지니는 신념이 어떠한지에 따라 물리적, 환경적 특성을 포함하여 놀이 허용 시간과 물리적, 환경과 관련성을 지니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됨을 밝히고 있다. 특히, 어머니들은 자녀 놀이 참여에서 자녀의 놀이 욕구와 대립하는 상황에서 어머니의 요구와 입장을 이끌고자 하는 모습도 나타난다(Kang & Han, 2017). 어머니의 놀이신념을 제한적, 발달적, 참여적 놀이신념으로 구분하여 어머니의 놀이참여 경향과 정도를 살펴본 Sim(2018)의 연구에 의하면 어머니들은 발달적 신념과 참여적 신념을 가장 많이 지니고 있고 실제 놀이행동으로는 게임, 신체놀이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놀이참여의 양상과 질적 수준을 통해 어머니의 놀이신념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재확인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어머니의 놀이참여가 놀이신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놀이참여 하위요인인

놀이참여 수준, 휴일놀이시간은 놀이신념 하위요인인 놀이지지신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평일놀이시간은 놀이지지신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 평일 놀이참여 점수가 높은 어머니들은 오히려 낮은 놀이지지신념 점수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Kim et al.(2013)의 연구에서 부모의 놀이신념의 하위변인인 놀이지지의 점수가 높은 경우 부모들이 자녀와 더 많은 시간, 높은 수준의 놀이를 자주하며 부모의 ‘학습중심’ 놀이신념 점수가 높은 경우 부모들은 자녀와 더 적은 시간, 낮은 수준의 놀이를 하고 놀이하는 횟수가 적게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어머니들이 유아들의 놀이성을 중시하고 놀이를 지지하는 놀이지지신념을 형성하였음에도 평일에는 유아교육기관을 이용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어머니의 놀이참여가 제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다. 또한, 평일 자녀 놀이에 참여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어머니는 자녀의 학습의 일환으로 놀이에 참여하는 점도 유추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놀이참여 평일, 휴일 놀이참여 시간이 놀이신념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반되는 원인에 대하여 구체적인 변인과 맥락에서 규명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어,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놀이참여수준은 놀이시간(평일, 휴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놀이신념에 더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놀이참여 시간보다 유아놀이에 대한 관심, 적절한 지원과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참여수준에 따라 어머니의 놀이신념이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머니가 유아놀이의 본질과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 단순히 놀이참여시간에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놀이참여의 수준과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부모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Lee & Chung(2016)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놀이참여는 평일놀이시간에 비해 휴일놀이시간이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의 놀이지지 신념이 평일 놀이참여 시간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평일놀이시간에 비해 휴일놀이시간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 유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머니의 놀이지지 신념이 휴일 놀이참여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는 상반된다.

본 연구에서 놀이참여 수준과 놀이시간 중 놀이신념 하위요인인 학습중심 신념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해보면 평일놀이시간이 놀이참여 수준, 휴일놀이시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력을 학습중심 신념에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어머니의 평일놀이시간은 어머니의 놀이신념 하위요인인 학습중심 신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어머니의 놀이참여 수준과 휴일놀이시간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Kim et al. (2013)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어머니들이 성장발달과 학습을 목적으로 놀이를 활용하고 효과적인 활동이 되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나타낸 Han(2019)의 결과와도 유사한 맥락이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어머니들은 평일 놀이참여를 유아의 학습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

해, 휴일놀이참여는 ‘놀이’로 인식하고 참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어머니의 학습중심 신념을 형성한 경우 더 적은 시간, 낮은 수준과 놀이 회수를 보일 수 있으므로 평일놀이 참여에서 어머니의 참여내용과 양상을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놀이참여를 통해 어머니 자신도 즐거운 놀이를 희망하는 어머니들(Han, 2019)도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연구들은 어머니가 놀이를 지지하는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많은 놀이기회를 제공하며 자녀와 함께 하는 놀이시간이 길고 그 회수 또한 빈번한 것으로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Haight et al., 1997; Kim et al., 2013). 그럼에도 어머니들은 자녀와의 놀이참여에서 양육활동, 시간의 부족, 안전이라는 문제, 도덕성이 발달, 사회적 규범 습득을 위해 놀이 환경을 통제(Kang & Han, 2017)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어머니들은 자녀와 함께 놀이하고자 노력하는 동시에 자녀가 혼자 노는 것도 유익한 점이 있다는 인식(Han, 2019)도 볼 수 있다. 어머니의 놀이참여에서 실외놀이, 놀이안전, 놀이시간, 놀이안전, 놀이친구, 놀이도구의 하위변인은 유아의 행복감에 영향(Kim, 2020)을 주는 변인이 된다. 어머니들은 놀이에 관심이 있지만, 자녀의 놀이유형과 방법에 대해 많은 압박감과 혼란을 경험한다(Fogle & Mendez, 2006; Lee & Bae, 2013). 그러므로 어머니들이 자녀와의 적절한 놀이참여에 대해 놀이에 직접적이고 많은 정도의 개입을 하는 것으로 인지하거나, 반대로 놀이에서 단순히 방관하는 것이 유아의 놀이를 지원하는 것으로 단편적으로 이해와 신념을 형성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유아의 놀이지원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어머니들이 실내놀이 뿐만 아니라 실외놀이, 놀이 안전의 상황, 또래와의 놀이, 혼자놀이 등 다양한 상황에서의 유아의 주도적 놀이를 지원하기 위한 어머니와 유아의 상호작용과 놀이수준, 놀이개입, 놀이방법, 환경조성에 대한 사례교육, 놀이참여 기회도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유아기 자녀를 둔 놀이참여수준 및 놀이참여 시간은 어머니의 놀이신념과 관련성을 지니며 어머니의 놀이참여와 놀이행동은 놀이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놀이시간 역시 어머니의 놀이신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며 놀이의 질에 해당되는 놀이참여 수준이 어머니의 놀이신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평일 자녀 놀이에 참여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어머니는 자녀의 학습의 일환으로 놀이에 참여하는 것으로, 휴일의 경우 어머니는 놀이의 일환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어머니가 유아의 놀이 상대로서 적극적 참여함으로 유아의 놀이를 확장시키고 정교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일은 높은 수준의 놀이참여가 된다. 그러나 이는 유아의 모든 놀이상황에서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어느 순간에는 유아 놀이행동에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것이 유아의 놀이에 몰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놀이의 중요성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과 태도를

고취시키고 자녀와의 놀이에서 유아가 놀이에 더욱 몰입하여 즐기며 확장시킬 수 있도록 놀이흐름과 맥락에 대한 이해, 적절한 개입과 상호작용 등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어머니의 놀이참여와 놀이신념의 하위변인 간 영향력을 확인하였으나 어머니가 유아와 놀이하면서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심층연구를 통해 어머니 참여의 질적 수준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나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놀이참여와 놀이신념을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놀이참여 시간으로 평일, 휴일놀이참여가 어머니의 놀이신념에 상반된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향후 평일, 휴일 어머니의 놀이참여 양상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Ahn, S. H. (2007). *The relation between creativity, mothers' beliefs to their children and early educ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 국문: 안선희 (2007).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신념 및 조기교육과 유아의 창의성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 Babuc, Z. T. (2015). Exploring parental perceptions and preferences about play: A case study in Erzurum.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197, 2417-2424. <http://doi.org/10.1016/j.sbspro.2015.07.304>
- Benson. T. R. (1994, April 11-16). *Needed: Playleaders: The adult's role in children's play* [Conference Papers] 45th Conference of the Southern Early Childhood Association, NewOrleans, LA, United States.
- Chae, J. O., Lee. K. W., Kim, S. Y., & Kim. Y, J. (2004). *Pla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YSW Pub. ☞ 국문: 채종옥, 이경화, 김소양, 김연진(2004). *영유아를 위한 놀이지도*. 양서원.
- Chung, H. Y. (2008). A study on preservice teachers' change of educational beliefs through student teaching experiences.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21(2), 235-257. ☞ 국문: 정혜영(2008). 교육실습을 통한 교육실습생의 교육신념 변화 연구. *초등교육연구*, 21(2), 235-257.
- Harver, J. M., & Howes C. (1993). Cultural differences in American and Mexican mother-child pretend play. *Merrill-Palmer Quarterly*, 39(3), 344-358.
- Feiman-Nemser, S., McDiarmid, G., Melnick, S., & Parker, M. (1989). *Changing beginning teachers' conceptions: A description of an introductory teacher education course* (Research Report 89-1). Michigan State University.
- Fein, G. G., & Fryer, M. G. (1995). Maternal contributions to early symbolic play competence. *Developmental Review*, 15(4), 357-381. <https://doi.org/10.1006/drev.1995.1014>
- Fein, G., & Stork, L. (1981). Socio dramatic play: Social class effects in integrated school classroom.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 267-279. [https://doi.org/10.1016/0193-3973\(81\)90006-X](https://doi.org/10.1016/0193-3973(81)90006-X)
- Fogle, L. (2003). *Parent beliefs about play: Relations with parent-child play interaction and child peer play compete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 Fogle, L., & Mendez, J. (2006). Assessing the play beliefs of African American mothers with

- preschool children.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1(4), 507-518. <https://doi.org/10.1016/j.ecresq.2006.08.002>
- Ginsburg, K. R. (2007). The importance of play in promotion healthy child development and maintaining strong parent-child bonds. *Pediatrics*, 119(1), 182-191. <http://doi.org/10.1542/peds.2006-2697>
- Haight, W. L., Parke, R., & Black, J. (1997). Mothers' and fathers' beliefs about and spontaneous participation in their toddlers pretend play. *Merrill-Palmer Quarterly*, 43(2), 271-290.
- Han, J. J. (2019). A qualitative study on the characteristic of mothers' play behavior according to play beliefs. *Journal of Parent Education*, 11(1), 1-28. ㉞ 국문: 한진주 (2019). 놀이신념에 따른 어머니 놀이행동 특성에 대한 질적연구. *열린부모교육연구*, 11(1), 1-28.
- Hong, S. K. (2010). *Parent's perception of young child's play*.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㉞ 국문: 홍수경(2010). **유아의 놀이에 관한 부모의 인식**.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Hong, J. Y. (2007). *The relations between mother's beliefs for play, parental efficacy and parenting behavi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won University. ㉞ 국문: 홍정유 (2007). **어머니의 놀이신념 및 양육 효능감과 양육행동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수원대학교.
- Jang, J. Y. (2014). *The effects of mothers' beliefs for play and participation levels on young children's playfuln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nam University. ㉞ 국문: 장정윤(2014). **어머니의 놀이신념 및 놀이참여도와 유아의 놀이성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 Jeun, K. S. (1995). A Study on the theoretical models of parental belief and child development.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5(1), 15-45. ㉞ 국문: 전경숙(1995). 부모의 신념과 아동발달에 대한 이론적 모형의 탐색. *유아교육논총*, 5, 15-45.
- Jung, E. H. (2018).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s' and mothers' participation time and types in play, children's playfulness and peer play intera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㉞ 국문: 정은혜(2018). **아버지·어머니의 자녀 놀이참여 시간 및 유형과 유아의 놀이성, 또래놀이 상호작용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Kang, M. H., & Han, J. J. (2017). Children's play with mothers: Meaning from mothers' perspectives.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 & Rights*, 21(4), 541-563. <http://doi.org/doi.org/10.21459/kccr.2017.21.4.541> ㉞ 국문: 강명화, 한진주(2017).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하는 놀이의 의미: 어머니 관점을 중심으로. *아동과 권리*, 21(4), 541-563.

- Kim, B. R., & Ohm, J. A.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ctual state of extra curricula education for kindergarteners and maternal beliefs regarding child rearing.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5(8), 13-24. ㉮ 국문: 김보림, 엄정애(2007). 유아 조기특기교육의 실태와 어머니 양육신념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5(8), 13-24.
- Kim, H. Y.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farther's play belief, play participation on young child's social skill*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won University. ㉮ 국문: 김혜연(2014). 아버지의 놀이신념 및 놀이참여도와 유아의 사회성 기술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수원대학교.
- Kim, J. E. (2014). *Effects of playfulness, play support beliefs and parenting stress on intimate parenting in mothers of young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국문: 김지은(2014). 유아기 어머니의 놀이성, 놀이지지신념 및 양육스트레스가 애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 Kim, J. H. (2020). The effect of the mothers awareness of the children's right to play and the mothers' participation on the children's well-being. *Korean Journal of Parent Education*, 17(1), 49-64. ㉮ 국문: 김진희(2020). 유아의 놀권리에 대한 어머니인식, 놀이참여가 유아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부모교육연구*, 17(1), 49-64.
- Kim, J. Y., & Choi, M. S. (2012). Differences in children's playfulness and leadership depending on the level of parents' play belief. *The Journal of Childhood Education*, 21(4), 189-206. ㉮ 국문: 김진영, 최미숙(2012). 부모 놀이신념 수준에 따른 유아의 놀이성 및 리더십의 차이. *아동교육*, 21(4), 189-206.
- Kim, K. C., Han, Y. J., & Kim, I. A. (2019). Analysis of research related to play beliefs of teachers and parents about children's play.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39(6), 349-375. <http://doi.org/10.18023/kjece.2019.39.6.015> ㉮ 국문: 김경철, 한유진, 김인애(2019). 유아의 놀이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놀이신념 관련 연구 동향 분석. *유아교육연구*, 39(6), 349-375.
- Kim, M. S., Cho, H. R., Park, Y. L., & Shin, H. Y. (2013). The study of parents and children regarding play: Focused on parental play beliefs and play participation. *Journal of Parent Education*, 5(1), 37-54. ㉮ 국문: 김명순, 조항린, 박영림, 신혜영(2013). 부모와 유아 자녀의 놀이에 관한 연구: 부모의 놀이신념 및 놀이참여를 중심으로. *열린부모교육연구*, 5(1), 37-54.
- Kim, M. Y. (2012). *Relationship of stress and depressive symptoms to maternal efficacy among mothers with children in early childhood*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 국문: 김미연(2012).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우울감과 어머니 효능감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Lee, H. B. (2008). *Parent beliefs about play: Effects on children's playfulness and communication abil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 국문: 이한별 (2008). 부모의 유아 놀이신념에 따른 유아의 놀이성과 의사소통능력.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Lee, H. I., & Shin, N. R. (2020). Effects of mothers' play belief on self-determination of young children: The mediating role of children's play time. *Korean Journal of Childcare and Education*, 16(3), 59-77. <http://doi.org/10.14698/jkcce.2020.16.03.059> ㉮ 국문: 이효임, 신나리(2020). 어머니의 놀이신념이 유아의 자기결정력에 미치는 영향: 놀이 시간이 매개역할.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6(3), 59-77.
- Lee, H. J., & Chung H. W. (2016). The relationship among the parents' play beliefs, play participation and the child's happiness: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parents' play participation.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11(4), 77-95. <http://doi.org/10.16978/ecec.2016.11.4.004> ㉮ 국문: 이현지, 정혜옥(2016). 부모의 놀이신념, 놀이참여, 유아의 행복감 간의 관계: 부모의 놀이참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육아지원연구*, 11(4), 77-95.
- Lee, J. H., & Bae, E. K. (2013). From obsession with perfection to 'good-enough mother': Focusing on winnicott's infant emotional development theory and mothering. *Issues in Feminism*, 13(2), 35-75. ㉮ 국문: 이진희, 배은경(2013). 완벽성의 강박에서 벗어나 '충분히 좋은 어머니(good-enough mother)'로: 위니콧의 유아정서발달이론과 어머니노릇을 중심으로. *페미니즘연구*, 13(2), 13-75.
- Lee, K. S., Park, E. H., & Kim, H. J. (2004). A study of mother-child interaction in a free play.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42(2), 433-457. ㉮ 국문: 이기숙, 박은혜, 김희진(2004). 자유역할놀이에서 나타난 어머니-유아 상호작용. *교육학연구*, 42(2), 433-457.
- Lee, S. M. (2015). *The effects of parent-child play and private education on children's happines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 국문: 이승미(2015). 부모-자녀 놀이 및 사교육 현황과 유아의 인식이 유아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Lim, J. J., Kim, Y. J., Cho, S. W., & Ahn, S. H. (2012). Differences in their children's school readiness by mothers' play participation levels and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children and mother.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19(4), 295-319. ㉮ 국문: 임정진, 김유정, 조수원, 안선희(2012). 유아와 어머니의 개인적 배경 및 어머니의 놀이참여 수준에 따른 유아의 학교준비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9(4), 295-319.
- Lim, S. J., Kim, Y. H., Park, H. S., Lee, S. H., Jang, K. E., & Taek, J. W. (2019). *Play, homo*

- ludens*. YSW Pub. ㉮ 국문: 임수진, 김윤희, 박형신, 이승하, 장경은, 탁정화(2019). **놀이 하는 유아: 호모 루덴스를 향하여**. 양서원.
- McGillicuddy-Dalisi, A. V., & Sigel, I. E. (1995). Parental beliefs. In M. H. Bornstein (3rd ed.), *Handbook of parenting: Status and social conditions of parenting* (pp. 333-358).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Nam, Y. H., & Kim, K. J. (2013). The effects of mothers' play beliefs on young children's peer competence and creative characteristics.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and Care, 13*(1), 61-80. ㉮ 국문: 남윤희, 김금주(2013). 어머니의 놀이신념이 유아의 또래 유능성과 창의적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13**(1), 61-80.
- O'Connor, K. (2001). *The play therapy primer* (2nd ed.). John Wiley & Sons.
- Oh, S. Y. (2003). A study on the effects of student teaching on student-teachers' educational belief and role perception.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7*(1), 69-91. ㉮ 국문: 오선영(2003). 교육실습이 예비유아교사의 교육신념과 역할 인식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7**(1), 69-91.
- Park, S. H. (2014). *The relations between mothers' play belief and play participation and young children's playfuln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ha University. ㉮ 국문: 박순하(2014). **어머니의 놀이신념 및 놀이참여도와 유아의 놀이성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 Park, Y. A., & Kim, R. J. (2011). Childhood play experience, play-related perceptions and child perception of mothers of children between preschool through third grade and their mother-child play condition. *Korean Journal of Play Therapy, 14*(2), 37-56. ㉮ 국문: 박영애, 김리진(2011). 유아기 및 아동초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놀이관련 인식 기초조사.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4**(2), 37-56.
- Rogers, C. S., & Sawyers, J. K. (1995). *Play in the lives of children* (4nd ed.), NAEYC.
- Roopnarine, J. L., & Davidson, K. L. (2015). Parent-child play across cultures: Advancing play research. *American Journal of Play, 7*(2), 228-252.
- Russell, A., & Saebel, J. (1997). Mother-son, mother-daughter, father-son, and father-daughter: Are they distinct relationships?. *Developmental review, 17*, 111-147. <https://doi.org/10.1006/drev.1996.0431>
- Sim, M. Y. (2018).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the variables on mothers' play beliefs, play participation, child-rearing role practice and children's playfulness and social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 국문: 심미영 (2018). **어머니의 놀이신념, 놀이참여, 역할수행과 유아의 놀이성, 사회성과의 구조적 관계 분석**. 박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 Sim, M. Y., & Lee, M. O. (2018).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the variables on mothers' play beliefs, play participation, child-rearing role practice, and children's playfulness and sociality.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ucare Welfare*, 22(4), 509-536. <http://doi.org/10.22590/ecee.2018.22.4.509> 국문: 심미영, 이문옥(2018). 어머니의 놀이신념, 놀이참여, 역할수행과 유아의 놀이성, 사회성과의 구조적 관계.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2(4), 509-536.
- Smilansky, S., & Shefataya, L. (1990). *Facilitating play: A medium for promoting cognitive, social-emotional and academic development*. Psychology and Educational Publication.
- Smith, P. K., & Syddall, S. (1978). Play and non-play tutoring in pre-school children: Is it play or tutoring which matter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48(3), 315-325. <https://doi.org/10.1111/j.2044-8279.1978.tb03017.x>
- Won, H. Y. (1998).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father's play participation level and child's social abil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국문: 원희영(1998). **아버지의 놀이참여 수준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 Yoon, S. I.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play beliefs, play participations of dual-earner parents, and two-year-old toddler's playfuln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국문: 윤상인(2011). **맞벌이 부모가 지각한 놀이신념 및 놀이참여도와 만 2세 영아의 놀이성 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You, M. (2008). *The effects of maternal beliefs about play and emotional expressiveness on children's playfuln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국문: 유미(2008). **어머니의 놀이신념과 정서표현성이 유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You, M., & Yoo, M. S. (2008). The effect of mother's play belief and emotional expression on infant playability. *Korean Journal of Play Therapy*, 11(4), 53-63. 국문: 유미, 유미숙(2008). 어머니의 놀이신념과 정서표현성이 유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1(4), 53-63.